광주일보 70년 간 기관·단체·기업·대학 및 교육·의료·금융기관과 동행

100년의 미래 바라보며 지역 발전의 기수로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것

광주일보는 1952년 4월 20일 창간 이후 '지역발전의 기수'를 자임하며 호남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 대학 및 교육·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들이 든든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현재의 광주·전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이 앞으로 더 잘 살고, 풍요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 대학, 단체, 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다양한 기관들의 지역으로의 이전, 지역 내 신규 설립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광주일보는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경제 발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기관, 대학, 단체, 기업 등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이들이 지역 내에서 영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혁신의 과정과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며 정부를 설득했다. 한국전력은 광주·전남의 미래 핵심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세계 톱 10 공대를 목표로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첫 입학식을 거행하면서 공기업, 특수대학, 민간기업 등의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 승원종합건설, 도경건설 등 건설업체, 광주신세계백화점, 광주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등도 광주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건설·유통을 책임지며, 추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몫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자금의 흐름을 관장하는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도움없이 현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지역 발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학과 연구·지원기관이다. 이들은 지역 혁신에 있어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기술 진보, 제품 개발, 기업 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광주·전남 여건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의 선전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역할을 지지하며, 광주신세계안과와 같이 작지만 강한 전문 의료기관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풍부한 농수축산물, 풍력·태양광, 바이오 자원, 전통문화 등을 가진 전남에서는 연구·지원을 맡은 공공기관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도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지역 발전의 기수로, 기관·대학·단체·기업 등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발전해나갈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와 함께한 기관

농협전남본부
한국전력
농협광주본부
동행재활요양병원
수자원공사
금호타이어
(주)두비
승원종합건설그룹
빛고을중앙공원
도경건설
광주시교육청
전남대병원
애플B유치원
조선대병원
전남도교육청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은행
광주신세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세계안과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립대학교
전남농업박물관
전남도립미술관
전남개발공사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아
달성종합건설